

금연! 절제를 통해 더 강한 군대로



“절제란 인간의 욕망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덕목”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향해 스스로를 이끄는 인간의 지혜이자 의지다. 최근 육군3사관학교에서 진행된 금연 인문학 강의는 장병들에게 절제의 의미를 군 생활과 연결해 되새기게 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담배 한 개비는 순간적인 위안을 주는 듯하나 그것이 쌓이면 건강을 해치고 체력을 떨어뜨리며,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건강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피로, 집중력 저하는 곧바로 전우들의 안전과 임무 수행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번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금연이 강제로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인문학적 실천이라는 가르침이었다. 스스로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군인이 진정으로 강한 군인이며, 절제할 줄 아는 군대가 더 강한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강의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금연이란 게 한 번에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끊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많은 이가 한 번의 결심으로 금연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금연은 실패와 도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는 마치 군인의 훈련과도 같다. 한 번의 훈련으로 완벽해지지 않듯이 절제와 자기관리 역시 인내 속에서 다져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시도하는 용기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전우, 국가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절제와 금연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신체, 남을 더 배려하는 행동, 더욱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금연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쌓일 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지휘관으로서 함께하는 전우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금연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옆의 전우와 같이하는 길이며, 나의 작은 선택이 부대 전체의 힘으로 이어지는 실천이다. 비록 당장은 완벽히 끊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전우애의 실천이며 군인으로서 책임이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전우와 강한 군대를 위한 약속이다. 이제 우리 모두 절제의 힘으로 금연을 실천할 때 전우들과 함께 더 강한 군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이은영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군947-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군947-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유용과 무용

조명탄

황인
미술평론가



본적으로 지탱하는 옷, 음식, 집 등의 식주부터가 일종의 인공이다.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 역시 모두 인공이다. 요즘은 의식주와 생필품의 인공을 넘어 지능의 인공 세계로까지 진입했다.

원래 아트는 매우 단순한 뜻을 지녔다. 인간에게 유용한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일컬었다. 예를 들면 돌도끼도, 흙으로 만든 그릇도 다 아트다. 짐승을 잡거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유용함이 있다. 그런데 동굴 벽화는 어디에 유용한 결과? 또 난해한 현대미술은 어디에 유용한 결과? 동굴 벽화는 사냥의 기록이나 많은 수확·다산을 기원하는 그림이라는 설이 있다.

이 그림은 어느 정도 유용한 데가 있다. 입체파의 한 사람인 피카소의 그림은 어디에 유용할까? 코와 눈이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다. 인물의 기록으로 보기엔 사실성이 전혀 없다. 아무리 봐도 유용함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런 무용의 아트를 실행하는 자를 ‘아티스트’라고 한다.

아트가 유용함을 계속 담고 있는 걸 기술이라고 부른다. 아트의 어원인 라틴어 ‘아르스’는 그리스어 ‘테크네’를 번역한 말이다.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인데 오늘날엔 ‘유용(有用)’한 아트는 테크네로, ‘무용(無用)’한 테크네는 아트라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움(내추럴)의 세계는 과거처럼 자연과 유용의 아트와 결합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유용의 아트, 여기다 무용의 아트까지 다 합쳐진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인간은 의외로 무용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놀이, 지적 호기심, 사람들과의 소통, 웃음, 신뢰 등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에는 무용이 빚어낸 게 많다. 무용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무용을 잘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문화와 함께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젊은이가 음악·미술·무용 등 고전적인 아트 장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가령 유용의 아트라고 할 수 있는 빵집·식당 등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무용의 아트를 지향하는 ‘아티스트’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음은 고무적이다. 아티스트라는 명칭을 쓰고 싶어 하는 만큼 삶이 높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활약한 예비군

9월 18일은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29주기가 되는 날이다. 전군 유일의 예비전력 관련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무장공비의 잔혹함과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 예비군의 활약을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1996년 9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무장공비 26명을 소탕하기 위해 국군, 예비군, 경찰에 의해 49일간 실시된 작전이다. 무장공비들은 9월 17일 사전 침투해 강릉비행장, 주요 도로망 등의 정찰임무를 마치고 9월 18일 북으로 북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잠수함이 해안에 접근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선체 바닥과 스크루가 파손돼 기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잠수함에 불을 지르고 육상으로 도주하면서 아군에 발각됐다. 이는 전술적 수단인 잠수함으로 대남공작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한 최초의 사건이며, 단순한 간첩이나 포섭을 통한 대남공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에 강원도 전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 연인원 150만여 명, 지역방위 예비군 28만여 명이 동원돼 탐색·격멸작전을 전개했다. 작전 중 무장공비는 특수훈련

기교

한상열 전문군무경력관 기교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교육단



을 받지 않은 잠수함 승조원의 도주 속도가 느려 아군에 추격당할 것을 우려해 청학산 정상 부근에서 11명의 동료와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다. 49일간의 끈질긴 추격작전 끝에 침투한 무장공비 1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으나 작전을 펼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사항도 다수 식별됐다.

특히 예비군은 작전 1일 차 응소율이 32%로 저조했다. 자원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했고 비상연락망 최신회, 예비군 전출·출입자 현황 파악이 미흡해 초기 작전 때 봉쇄선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작전 지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작전 중에는 평소 작계지역 교육훈련이 부족해 투입해야 할 목진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주야간 비전술적 행동으로 적에게 아군의 위치를 노출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가 미흡해 급식 등 지속지

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97년 1월 13일에는 통합방위법을 제정해 민·관·군·경 통합방위 협조기구 운영의 법적 보장, 동원응소를 향상을 위한 응소 기준시간 설정, 예비군대원 자원결산체계 확립, 예비군부대 지휘요원 교육, 군기 문란자 처벌기준 강화 등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대남도발 양상은 아군의 해안감시망 발달과 경계시스템 과학화로 밀입국 및 탈북 가장 침투, 제3국으로의 우회 침투, 포섭 활동, 소형 무인기 정찰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발달로 더 이상 무장공비의 침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선부분 판단이며, 우리가 대비하지 않은 느슨한 틈을 적은 반드시 역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우리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안보를 튼튼히 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는 게 선배 전우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